“내게 교육이란 가르침 아닌 동행”

박주정 광주 진남중학교 교장 수필집 ‘707명의 아이들’ 발간
불우했던 어린시절 트라우마 극복
부적응 학생 707명 사랑으로 교육
‘부르미’·‘금란교실’ 등 정책 개발도

“잘하는 아이들보다 못하는 아이들, 힘든 아이들 곁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은 가정의 아이들은 조금 떨어져 지켜만 봐도 잘 해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뭔가 그늘이 있는 아이들, 한숨이 가득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공적인 공간을 꼽으라면 ‘학교’를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중고를 졸업하고, 성적에 따라 또는 집안 형편에 따라 대학에 진학한다. 학교는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마찬가지로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관청 또한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주체들이다.

광주 진남중 박주정 교장이 펴낸 수필집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김영사)을 읽다보면 과연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감탄하게 된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문제투성이의 학교 현장 이면에 인간미 넘치는 교육자가 있다는 사실은 적잖은 위안을 준다. 책 제목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 그 자체로 울림을 주는 이유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그의 모든 말의 중심은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 상처와 원망이 있는 아이들은 어쩌면 어린 시절 그의 ‘페르소나’였을지 모른다.

그는 “나의 교육은 가르침이 아닌 동행이었다”며 “그것은 화려한 형용사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했던 동사였다”고 말했다.

박 교장의 말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적 향상에만 있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어울림에도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많이 울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나는 함께 아프고 힘들었으니까요. 빨간 프라이드로 50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의 시신 옆에서도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 울었습니다.”

박 교장의 내면에도 트라우마가 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라는 자책에 시달렸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였고, 그가 ‘아픈 아이’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고흥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가 달리기 시합을 하다 불구가 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다. 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문맹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아버지로부터 주산과 한문을 배워 실력이 탁월했던 그는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담임선생님 지시로 학생들 성적을 합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신의 성적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알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가혹한 폭력이었다. 선생님이 불 같이 화를 내며 주산으로 얼굴을 내리쳐, 온통 피투성이가 돼 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학교에 찾아가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러다 중도에서 돌아가시는 사고를 당한고 만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바람에 형제자매들이 어렵게 살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운명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난데다 저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니까요.”

지나온 시절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더는 다닐 수 없어서 그는 큰누나가 있는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

이후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생활도 했지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산으로 출가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3년 후 다시 사회로 나온다. 대학원 공부를 하는 중에 광주의 모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한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교육계 현실을 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교육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가 처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함께 했던 것은 지난 93년 6월이었다. 당시 10평의 작은 아파트에 학생들이 찾아온 것. “여덟 명의 아이들이 그날 밤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함께 했던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더니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애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죠.”

이후 북구 용전동 감나무농장을 개조해 불우한 아이들과 생활했다. 함께 있다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새로운 아이들을 데려오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모두 707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었다.

박 교장은 그러나 “사비를 들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데다 빚이 늘어 교육청 전문직 장학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가장 가기 싫어하는 학교폭력팀 장학사로 나가 18년 동안 생활지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쏟았다. 24시간 현장으로 달려가는 ‘부르미’ 제도를 비롯해 공교육 WE센터의 모델이 된 ‘금란교실’, 선생님들과 함께 설립한 ‘용연학교’ 등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금의 학교 문제에 대해 “학부모, 교사, 학교, 정부 등 교육의 각 주체들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자기 목소리만 내면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7월 북토크콘서트를 함께 했던 이해인 수녀는 “박주정 선생님이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한 의무인 양’ 실행해온 헌신적인 일들은 읽는 이에게 감동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여기 나부터 늦지 않게 마음을 내어 무언가 좋은 일을 시작하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악·판소리·단가…우리가락에 흠뻑~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9~10월 레퍼토리 다채

다음달 14일 무대에 오르는 그룹 ‘이드’.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관객과 소통하는 종합예능 ‘연희’부터 연창예술의 꽃 ‘판소리’까지.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 이하 남도국악원)은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를 통해 이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9월과 오는 10월에도 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오후 3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오는 16일에 ‘치고 치고 또 치고 둥둥둥’이라는 주제로 타악과 연희 공연이 펼쳐진다. 또 의례 거행 등에 연주되던 행진음악 ‘대취타’와 단가 ‘호남가’, 사물놀이 ‘웃다리풍물가락’을 들려준다.

23일에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초청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농삿일을 마치는 칠월칠석 백중(음력 7월 15일) 즈음 한 마을의 초대로 네 개 마을이 모여 힘과 기예를 겨루는 대동 마을축제다. 총 4과장으로 구성돼 ‘입장굿’, ‘큰기 인사’, ‘만두례와 장원례’부터 ‘기싸움’, ‘대동거리’, ‘마무리굿’과 ‘환송’ 등 순서로 펼쳐질 예정.

다음 달에도 국악 난장이 펼쳐진다. 먼저 7일 ‘그리운 것은 산 위에 있는데’라는 주제로 기악합주 ‘상령산’, ‘세계민요기행’ 등을 선보인다. 또 무용 ‘새타령’과 ‘산조춤’, ‘화관무’ 등 다채로운 무용 향연도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14일 원초적 음악집단을 추구하는 그룹 ‘이드’를 초청해 진행하는 ‘Bon Voyage!’도 기대를 모은다. 한국전통음악에 서양리듬을 곁들여 ‘월산’, ‘아, 산염불’, ‘청천’, ‘나나니’ 등을 들려준다. 끝으로 28일 기획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은 익히 알려진 ‘심청가’, ‘적벽가’, ‘흥보가’, ‘수궁가’, ‘춘향가’ 중 각각 한 대목씩을 부른다.

무료 관람.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하루 종일 즐기는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ACC, 17일 올데이 행사…춤·오케스트라 공연 등

인도네시아 세계무형문화유산 전통 가무를 비롯해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주간(15일~24일)을 맞아 ‘올 데이 인도네시아’ 행사가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에서 펼쳐진다.

ACC는 낮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인도네시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펼쳐진다.

먼저 경성대 인도네시아 유학생 전통춤 동아리 ‘키타’가 선보이는 사만 춤을 아시아문화광장 야외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북부 수마트라 아체 지역의 가요 족이 특정한 날 추는 춤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과 ‘발리:천상의 울림’ 영화도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상영된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으로 제작한 새로운 곡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다채로운 아시아의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창단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대표 전통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오케스트라로 매년 국내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감독 리비 쳉의 영화 ‘발리: 천상의 울림’도 같은 무대에서 상영한다. 발리의 음악과 춤을 알리기 위한 협업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올 데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5·18 영화 ‘송암동’ 이조훈 감독 초청 강연

광주트라우마센터, 26일 전일빌딩 245

영화 ‘송암동’은 80년 5월 24일 광주 외곽 송암동 일대에서 벌어진 무차별 발포, 군인들간의 오인 교전, 민간인 학살 등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당시 증언을 통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김명권)는 ‘송암동’의 감독 이조훈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연다. 오는 26일 오후 7시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 강당.

‘서산개척단’, ‘송암동’,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등을 만든 이조훈 감독은 5·18 당시 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광주 출신 영화인이다. 이번 강연은 ‘송암동’을 매개로 송암동 일대에서 벌어진 참상을 환기하고 진상규명과 오월정신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김명권 센터장은 “영화는 당시 광주의 아픔과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강연은 영화 상영,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떨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